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3.02.04	작성자	김민서
회의 장소	온라인 (줌)	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회의 참석자	이호찬 총괄 멘토, 김민서 멘토, 장한림 멘토, 강유정, 강준서, 김수미, 김경락, 김시율, 박세록, 박태준, 안민준, 양해람, 오하은, 윤수영, 임시연, 홍서연, 조예소 의원		
회의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건1 청소년의원님들 자기소개 2. 안건2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 3. 안건3 위원단 선거 		
회의 내용요약	<p>▣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p> <p>1. 안건1</p> <p>의원님들과 멘토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 거주지역, 지원동기, 관심분야</p> <p>2. 안건2 :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p> <p>3. 안건3 : 위원단 선거</p> <p>출마의 변 및 투표 진행</p>		
회의 내용			
<p>▣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안내사항 공지 <p>이호찬 총괄 멘토 : 앞으로 진행될 회의의 규칙 안내. 첫째, 상임위 회의는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참여를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접속. 둘째, 모든 청소년의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위치이므로 '경어체' 사용. 셋째, 회의 중에는 '본 의원', '본 위원회'와 같은 삼인칭 사용. 넷째, 상임위에 불참하게 될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합당한 사유와 함께 불참석 사실 안내. 과도하거나 고의적이고</p>			

상습적인 불참석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정 활동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간단한 의원님들과 멘토님들의 자기소개
- 의원님들의 입법청원안 제안설명

1) 윤수영 의원 : 청소년권리교육법 입법청원안 제안설명

사기업과 단체에서만 진행되는 아동권리교육법을 청소년 및 모든 청소년단체로 확대하여 이를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시설내 폭력이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질의 : X

2) 강준서 의원 :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도로교통법 교육 의무화

더운날 실수/고의로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 발생 :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 6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교육을 실시하는것을 의무화.

기대효과 : 아이들이 스스로 방치를 탈출할 수 있기에, 사고율 감소

→ 질의 : 박태준 의원 : 교육을 주최하는 기관/ 장소

→ 답변 : 지자체와 같은 기관임.

3) 박태준 의원 : 정치편향교육금지법

정치권 내에서 연령제한이 완화된 만큼,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 교육을 하게되면, 올바르게 못한 정치적이치관이 성립.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차단하고자함

→ 질의 : 강준서 의원 :구체적인 나이대와 장소

→ 답변 : 어느 한 소속이 아닌, 모든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함.

→ 질의 : 윤수영 의원 : 교사들의 수업권을 묵살시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생각을 질의함.

→ 답변 :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시키는 것이 아닌, 최소한 수업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일은 없어야 함.

→ 질의 : 안민준 의원 : 처벌내용까지 구상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함.

→ 답변 : 징역과 같은 극단적 처벌은 어렵지만, 교사로서의 불이익을 줘야함. “불이익”은 징계, 처벌, 파면까지 포함

4) 홍서연 의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법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였기에, 청소년들의 인지능력이 어린나이에 이미 발달됨. 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1세로 하향한다.

→ 질의 : 강준서 의원 : 왜 만 11세 인가

→ 답변 : 만 10세에서 만 11세가 되는 순간, 인지능력이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나이여서 만 11세로 정함.

5) 박세록 의원 : 교사 행정업무 분리에 관한 입법청원

교사는 교육과 연구, 생활에만 전념하며, 행정업무는 보직교사가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진다.

→ 질의 : 강준서 의원 : 정확히 어떤 행정업무를 행정직원들에게 넘겨야 하는지 질의함.

→ 답변 :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행정업무들이 직접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음. 행정업무들로 인해 수업준비에 많이 방해가 된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음.

6) 조예소 의원 : 교육정책 6년 단위법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들로 인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혼란을 받음. 그러므로,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된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될때까지 교육법을 고정시켜서 학생들이 교육에 더 전념하도록 해야함.

→ 질의 : 윤수영 의원 : 지난 국회에서 발표한 10년 고정법과 관련이 있는지

→ 답변 : 그 기사를 읽어보았고, 10년 보다는 6년이 더 나은것 같음

→ 질의 : 박태준 의원 : 교육정책이 바뀌는 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중간에 바뀌는 교육과정을 받아들이기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됨.

→ 답변 : 그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최종목표는 거의 고정된 교육정책이기에, 우선 6년으로 시작해보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으며 추후 수정해나갈 계획임.

→ 질의 : 강준서 의원 : 피해 사례가 있는지 질의함

→ 답변 :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교육동영상들을 시청하면, 많이 댓글들을 볼 수 있음

→ 질의 : 안민준 의원 : 이미 6년 전면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

→ 답변 : 이미 시행되고 있는지 몰랐음.

- 중간 공지

이호찬 총괄멘토 : 궁금한점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공지

7) 양해람 의원 : 교육 불평등 해소법

놓여준 특별전형과 같이 현존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법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소득분위별 자녀의 대학 유형 등을 포함한 지표에 근거하여 해야함.

→ 질의 : 박세록 의원 : 지표를 분석한 다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는지 질의함.

→ 답변 :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불평등에 깊이 연관이 있기에, 지표를 분석한 후, 경제적 지원이 우선시되어야함. 사회,경제적 부분에 집중할 예정임.

8) 안민준 의원 : 특정 청소년범죄에 관한 처벌법률

사각지대에서 유통되는 유행물질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도록 특정 청소년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해야함.

질의 : X

9) 임시언 의원 : 청소년범죄교육법

요즈음 청소년범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학생들 또한 이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입법청원안 제안함.

→ 질의 : 강준서 의원 :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함.

→ 답변 : 피해자뿐만 아닌 가해자도 줄이며, 인식 강화를 통해 사회에 진출할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10) 김시울 의원 : 경제교육 활성화법

고등학교 진학 전, 중학교에서 미리 경제교육을 이수하여 사회에 나가지 전, 경제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질의 : 박태준의원 : 직접적으로 성인이 되기전 고등학생 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 중학교로 하는 이유가 궁금

→ 답변 : 이미 고등학생 때 경제 교육 이수, 조기교육을 받으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함

→ 질의 : 강준서의원 : 어떠한 경제교육인지 구체적 분야
→ 답변 : 성인이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과 같은 지식을 교육해야함.

11) 김수미 의원 : 초중등 교육법 제 10조 2 :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급식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석식과 조식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고등학생들에게 세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해야함.

→ 질의 : 강준서의원 : 기대효과
→ 답변 : 급식비 부담 감소, 개인의 학업에 더욱 투자가 가능함.

12) 오하은 의원 : 술, 담배, 약물 섭취 제한법

현재 제한법이 많이 약하며, 각성제, 흡착제와 같은 약물들은 제재가 거의 없다.

→ 질의 : 윤수영의원 : 마약과 같은 약물들은 이미 제한이 심한데, 현재 발의하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 답변 : 마약과 같은 부분보다는 각성제와 같이 실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들을 제한하는 부분에 치중하는 법안임.

→ 질의 : 양해람의원 : 구체적으로 어떤 강화방법인가
→ 답변 : 벌금이나 처벌강화를 생각중. 현재 더욱 생각을 해야함

→ 질의 : 박태준의원 : 출처를 명확히 알려달라
→ 답변 : 바로 자료를 찾은것이 아닌 예전에 찾은 자료라서 잘 모르겠음

13) 강유정 의원 : 청소년 직업체험법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직업 체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 높일 수 있음

→ 질의 : 김시울의원 : 자유학기제와 다른점
→ 답변 :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직업군을 찾을 수 있다는것이 다름

→ 질의 : 양해람의원 : 왜 일주일에 2번인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인가 기준에 대해 질의함.
→ 답변 :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4학년부터 진로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직업군을 찾는것에 많은 흥미를 느껴 4학년으로 기준을 세움.

14) 김경락 의원 : 학원법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

지역간 교육불평등과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중학생은 20시, 고등학생은 21시까지로 조정해야한다. 수면시간 고려가능하고, 학원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가질 수 있음.

→ 질의 : 안민준 의원 : 제한한 것이 스터디 카페가 맞는지 질의함.

→ 답변 : 네

→ 질의 :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스터디카페등을 포함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답변 : 참고하겠습니다.

출석 인원 14인 중 총 4표를 받은 김수미의원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청원안”과 3표를 받은 양해람의원의 “교육 불평등 해소법”이 청소년교육위원회 대표안건으로 채택

위원단 선거

투표를 통해 총 14분중 10표를 받은 강준서 의원이 위원장을, 찬.반 투표를 통해 총 14표의 찬성을 받은 윤수영 의원이 간사를, 총 14표를 받은 홍서연의원이 서기로 당선됨.